

十四經脈 중 足厥陰 經絡의 病症에 대한 考察

李康旭¹ · 尹大煥¹ · 朴燦圭¹ · 鄭宗佶² · 羅昌洙¹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¹ 경혈학교실, ²방제학교실

The Study of Literature on the Symptoms of Liver Channel

Kwang-uk Lee¹, Dae-hwan Youn¹, Chan-gyu Park¹, Jong-gil Jeong², Chang-su Na¹

Dept. of ¹Meridian & Acupoint, ²Prescrip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In the oriental medicine, the biological mechanism and pathogenic change have been based on the meridian. A Liver channel of those belong to the wood in the five element system, the Leg channel of the twelve primary channels, Absolute Yin(厥陰) in the three Yin channels and connect with Liver organ. Through the study on a liver chann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Leg Absolute Yin is indicated for disease affecting the lower abdomen, uro-genital system, knee and thigh. Symptoms associated with mind regulation system : hypochondria, a feeling of restlessness and the deficiency of Liver Yin. Symptoms associated with disease of Absolute Yin

Keywords : Liver channel, Absolute Yin(厥陰), Liver Symptoms

I. 緒 論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小宇宙라 하여 자연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자연계에는 인간이 생존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고, 자연계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인체의 생리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陰陽五行論的 體系, 五運六氣論的 體系에 의하여 자연계의 변화를 설명하였으며, 또한 이들 체계를 인체에 적용하여 生理的인 機能과 病理的인 病候를 설명하고 있다¹⁾.

五運의 自調作用에 의한 臟腑와 六氣의 化生作用에 의한 經絡의 평형 속에서 인체의 생리적 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²⁾. 따라서 經絡은 臟腑와 연계시켜 인체를 관찰하

기 위한 체계로서 氣와 血로 구성된 인체 血脈系統이라는 認識³⁾을 기초로 한 인체 발현의 외적기반으로 인체의 동적평형, 즉 항상성을 유지하게 한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고대의 해부지식과 철학사상을 기초로 하면서 장기적인 임상관찰이 어울려 經絡學說을 형성하게 되었으며⁴⁾, 따라서 經絡은 인체의 생리적 기틀이 될 뿐만 아니라 病理的 變化에 대한 근거로서 설명되고 있다.

足厥陰 經絡은 五行上 木에 해당하고, 手足에서 足經에 속하며, 陰陽 分類上 厥陰에 속하여 있고, 臟腑로는 肝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足厥陰肝經이라는 명칭 내에는 한의학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肝經脈은 膽經脈에서 이어져 下肢의 내측을 순행한 후 복부, 흉부에 이르게 되며, 다음 經脈인 肺經脈으로 이어지고, 또한 頭部로 이어져 督脈과도 연계를 맺고 있다. 肝

■ 교신저자: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61-330-3522, Fax. 061-330-2900
E-mail : nakugi@hanmail.net

經脈의 病候에 대하여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그리고 絡脈 및 經筋의 病候도 언급되고 있다. 肝經脈 穴位는 肝經의 全體 循行과 局所 循行部 및 穴位別 特性에 의하여 主治症이 확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足厥陰 肝經은 厥陰에 속하고 있어서 六經病 중 厥陰病과 연계를 맺고 있다⁵⁻⁷⁾. 足厥陰 經絡의 病候를 파악하는 것과 각 穴位의 主治 病症을 파악하는 것은 病候의 진단과 더불어 치료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著者는 足厥陰 經絡 체계에서 經脈 · 絡絡 · 經筋의 病候, 肝經 穴位의 主治 病症, 厥陰病의 病候를 알아봄으로써 足厥陰 經絡의 病候를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II. 本論 및 考察

1. 肝經의 經脈, 絡脈, 經筋 病候

1) 經脈 病候(是動病 · 所生病)

《靈樞·脈經》第十, 卷三⁸⁾

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 丈夫瘕疝, 婦人少腹腫, 甚則噎乾, 面塵, 脫色. 是肝所生病者, 胸滿, 嘔逆, 洩泄, 狐疝, 遺溺, 閉癢

《足臂十一脈灸經》⁹⁾

其病: 病勝瘦, 多弱(溺), 嗜(嗜)飲, 足柑(跗)腫(腫), 疾界(痺). 諸病此物者, [久(灸)] 卷(厥)陰溫(脈). 皆有此五病者, 有(又)煩心, 死. 三陰之病亂, [不]過十日死. 搗溫(脈)如三人參春, 不過三日死. 溫(脈)絕如食頃, 不過三日死. 煩心, 有(又)腹張(脹), 死. 不得臥, 有(又)煩心, 死. 唐(滯)[泄]恆出, 死. 三陰病離以陽病, 可治. 陽病北(背)如流湯, 死. 陽病折骨絕筋而無陰病, 不死.

《陰陽十一脈灸經》甲本¹⁰⁾

是動則 [病: 丈] 隕(癩) [山(疝), 婦人則少腹腫(種), 要(腰)] 不可以仰(仰), 甚則噎乾, 面疵, 是厥陰脈(脈)主治. [其所產病: 熱中, [降(癩), 隕(癩),

扁(偏), 山(疝)], □□有而心煩, 死, 勿治醫受(也). 有陽脈(脈)與之[俱]病, 可治醫受(也).

《陰陽十一脈灸經》乙本¹¹⁾

是動則病: 丈夫則隕(癩)山(疝), 婦人則少腹腫, 要(腰)痛(痛)不可以仰(仰)甚則噎乾, 面疵, 是厥陰之脈主治. 其所產病: 熱中, 降(癩), 隕(癩), 扁(偏)山(疝), □□病, 病有煩心, 死, 勿治也; 有陽脈與俱病, 可治也.

《太素·首篇》卷八, 楊上善註¹²⁾

[是動則病腰痛, 不可以俛仰, 丈夫頰疝, 婦人少腹腫腰痛, 其則噎乾面塵], 肝合足小陽, 陽盛并陰, 故面塵色也.

[是主肝所生病者, 胸滿嘔逆, 洩泄, 狐疝, 遺溺, 閉癢], 脈抵少腹俠胃故生洩泄也. 狐夜不得尿, 至門始得, 人病與狐相似, 因曰狐疝, 有本作頰疝, 謂偏頰病也. 癩篆文癩字, 此經淋病也, 音隆.

《銅人輸穴針灸圖經》卷二, 王維一¹³⁾

[是動則病] 足厥陰常多血少氣, 今氣先病, 是謂是動也. [腰痛不可以俛仰] 《素問》曰: 前謂腰脊痛, 不可以俛仰者, 三月一振榮華, 萬物一俛而不仰也 [丈夫瘕疝, 婦人少腹腫] 《素問》所謂瘕疝, 婦人少腹腫者, 厥陰者辰也, 三月陽中之陰, 邪在中, 故曰: 瘕疝少腹腫也, [甚則噎乾] 《素問》所謂甚則, 噎乾熱中者, 陰陽相薄而熱, 故噎乾也. [面塵脫色] 面如有塵, 而去其色, 脫去也. [是主肝所生病者], 血受病於氣色, 脫去也. [胸滿嘔逆 洞洩], 風中其經, 內舍於肝, 肝氣乘脾, 故爲洞洩矣. [狐疝], 狐夜不得尿, 日出方得, 人之所病, 與狐同候, 故曰狐疝. [遺溺閉癢.] 遺溺謂不禁, 閉癢謂不行也.

《醫經小學》卷三, 劉純¹⁴⁾

是動腰疼俛仰難, 男疝女人少腹腫, 面塵脫色及咽乾, 所生病者爲胸滿, 喘嘔洞洩小便難, 或時遺溺並狐疝, 臨症還順仔細看.

馬蒔註: 及其動穴驗病, 則爲腰痛不可以俛仰,

以肝與腎通，則筋之脈通於肝也。爲丈夫癘疝，辜丸屬肝也。爲婦人少腹腫，脈抵少腹也。甚則噎乾，脈循喉嚨也。面塵脫色，膽病。面有微塵，肝爲之裏，故主病同。是主肝經所生之病也。又有諸病之生，或出本經，或由合經。爲胸滿，脈上貫膈也。爲嘔逆，脈挾胃也。爲殮洩，脈抵小腹也。爲狐疝遺溺閉癢，以脈過陰器，上舉結於莖也。

《類經·疾病類》卷十四，張介賓註¹⁵⁾

〔肝，足厥陰也。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足厥陰支別者，與太陰少陽之脈，同結於腰髀下中膠，下膠之間，故爲腰痛。《刺腰痛》篇曰：厥陰之脈令人腰痛，腰中如張弓弩弦。

〔丈夫癘疝，婦人少腹腫〕足厥陰氣逆則爲辜腫卒疝。婦人少腹腫，卽疝病也。上義詳下章。癘，癩同，音類。

〔甚則噎乾，面塵脫色。〕肝脈循喉嚨之後，上入頰頰，上出頰，其支者從目系下頰裏，故爲此病。按至眞要大論列以上諸證於陽明在泉司天之下，以燥淫所勝，則病本於肝也。

〔是肝所生病者〕足厥陰經，肝所生病也。

〔胸滿嘔逆殮洩，狐疝遺溺閉癢，爲此諸病。〕本經上行者挾胃貫膈，下行者過陰器抵小腹，故爲此諸病，殮音孫。癢，良中切。

《靈樞集註·經脈》卷二下，張志聰註¹⁶⁾

頰頰，鬪上竅也。是在厥陰之動氣，則病腰痛不可以俛仰，甚則噎乾面塵脫色，蓋厥陰從少陽中氣之化，厥陰之化氣病也。丈夫癘疝，婦人少腹腫，厥陰之本氣病也。是主肝所生之病者，胸滿嘔逆，蓋食氣入胃，散精於肝，行氣於經，肝所生病，則肝氣厥逆，不能行散穀精，故胸滿嘔逆也。肝主疏泄，肝氣虛則殮洩遺溺，實則閉癢狐疝，隨經脈晝夜出入之疝也。

《鍼灸逢源·靈樞經脈篇》卷一，李學川¹⁷⁾

〔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足厥陰支別者，與太陰少陽之脈，同結於腰髀下中膠，下膠之間，故爲腰痛。〔丈夫癘疝，婦人少腹腫。〕足厥陰氣逆則爲辜腫，卒疝，婦人少腹腫，卽疝病也。〔甚則噎

乾，面塵脫色，是肝所生病者，胸滿嘔逆 洞洩狐疝，遺溺閉癢。〕足厥陰經上行者，挾胃貫膈下行者，過陰器抵小腹也。

《鍼灸集成》卷一，廖潤鴻¹⁸⁾

肝屬病：腰痛，癘疝，狐疝，小腹腫痛，噎乾，面塵脫色，胸滿，嘔逆，洞泄，癢洩，遺尿。

《常用腧穴臨床發揮》，李世珍¹⁹⁾

本經의 病候에는 頭痛, 眩暈, 耳鳴, 耳聾, 氣厥, 目疾, 脇痛, 肝區痛, 黃疸, 疝氣, 小腹痛, 震顫, 抽搐, 積聚 등이 多發하며, 순행처인 下肢 病變도 나타난다. 肝臟은 肝經의 經氣와 有關한 부위에 病變이 侵襲하면, 筋신과 체표에 그 症狀과 徵候가 나타난다. 症狀과 徵候는 모두 本經이 통과하는 부위와 有關한 부위에서 반영되어 드러나며, 진단과 치료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病候의 發生, 發展, 傳變과 나아가는 과정은 모두 本經이 통과하여 드러난다. 이러한 病候가 반영되는 곳은 모두 本經經穴의 治療범위로 本經의 經脈이 지나가고, 本經의 經氣를 조절함으로써 치료한다.

2) 絡脈 病候

《靈樞·經脈》第十，卷三²⁰⁾

其病氣逆則辜腫卒疝，實則挺長，虛則暴癢，取之所別也

《太素·十五絡脈》卷九，楊上善註²¹⁾

〔其病氣逆則辜腫卒疝，實則挺長熱，虛則暴癢，取之所別。〕辜，囊也。此絡上囊取於陰莖也，挺長，陰挺出長也，虛則陰癢也。

《靈樞註證發微·經脈》卷二，馬蒔註²²⁾

病氣逆則辜腫脹而卒成疝氣，邪氣有餘而實，則辜爲挺長，正氣不足而虛，則爲暴癢，皆當取此穴以治之也。

《類經·經絡類》卷七，張介賓註²³⁾

本經絡陰器，上辜結於莖，故其所病如此。而治此者，當取所別之蠱溝。蠱，音裏。辜，音高，陰丸也。莖，莖，行二音，陰莖也。

《靈樞集註·經脈》卷二，張志聰註²⁴⁾

去內踝五寸，乃厥陰經之蠱溝。厥陰之別絡，分佈於足，與經相干於蠱溝之間，而別走於少陽之絡，脛足胫牽。辜丸，即陰子也。莖，陰莖，乃前之宗筋。挺，即陰莖也。取之所別者，取別走少陽之絡，所謂陽取陰而陰取陽，左取右而右取左也。

《常用腧穴臨床發揮》，李世珍²⁵⁾

別絡 病候는 순행처인 脛, 股, 辜丸, 生殖器疾患 등을 반영한다. [足厥陰之別, 名曰蠱溝, ... 其病氣逆則辜腫卒疝, 實則挺長, 虛則暴癢, 取之所別也]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病候는 絡脈을 통한 순행부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絡穴인 蠱溝를 取穴하여 絡脈의 脈氣를 調整하여 치료한다.

3) 經筋病候

《靈樞·經筋》第十三，卷四²⁶⁾

其病足大指支，內踝之前痛，內輔痛，陰股痛轉筋，陰器不用。傷於內則不起，傷於寒則陰縮入，傷於熱則縱挺不收。治在行水清陰氣。其病轉筋者，治在燔鍼刮刺，以知爲數，以痛爲輸，命曰季秋痺也。

《靈樞註證發微·經筋》卷二，馬蒔註²⁷⁾

其病當爲足大指支內踝之前痛，爲內輔骨痛，爲陰股痛，或轉筋，爲陰器不用。若傷於內則陰器不起，若傷於寒則陰縮入，若傷於熱則陰器縱挺不收。治在行其水以清陰氣。其病爲轉筋者，治在用燔鍼以刮刺之，以知病爲刺數，以痛處爲輸穴，此證當發於九月之時，故名之曰季秋痺也。

《類經·疾病類》卷十七，張介賓註²⁸⁾

[足厥陰之筋病，足大指支，內踝之前痛，內輔

痛，陰股痛轉筋] 足厥陰之筋起於大指之上，結於內踝之前，又結於內輔骨之下，上循陰股也。

[陰器不用，傷於內則不起，傷於寒則陰縮入，傷於熱則縱挺不收.] 陰器者，前陰之具也，厥陰之筋結於此，陰器病者，有此三者之異。

[治在行水清陰氣] 清，理也。此言當以藥治之，在通行水藏而調陰氣，蓋水則肝之母也。

[其病轉筋者，治在燔鍼刮刺，以知爲數，以痛爲輸] 轉筋者，治當在經也。

[命曰季秋痺也] 足厥陰者，陰盡之經也，故應九月之氣。

《常用腧穴臨床發揮》，李世珍²⁹⁾

本經 經筋의 病候는 대부분 循行하고 맏히는 곳에서 나타난다. 病候로는 大趾攣急, 弛緩, 疼痛, 內踝前의 拘急, 痹痛이나 內측의 靱帶損傷, 脛 內側의 轉筋, 弛緩不用 혹은 拘急, 脛 內측에서 內踝까지 弛緩(足厥陰과 足陽明, 少陽 經筋이 弛緩된 것)되어 足下垂가 나타난 것, 拘急하여(足厥陰과 足少陰, 太陰 經筋이 拘急된 것) 足內翻이 나타난 것, 무릎안의 輔骨痛 혹은 攣急하여 屈伸에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 股 內側이 拘急·痿廢한 것, 陰器의 능력이 상실되어 陽痿, 陰縮 혹은 陰器縮脛, 陰精不收가 나타나는 것 등이다.

【肝經 病候에 대한 考察】

肝經絡의 經脈 病候는 《靈樞·經脈篇》의 “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丈夫瘕疝，婦人少腹腫，甚則噎乾，面塵，脫色。是肝所生病者，胸滿，嘔逆，飧泄，狐疝，遺溺，閉癢”이라 한 것을 위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吳紹德³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하였다. 本外經病은 해당 경맥 순행부위에 따른 국소 질병을, 本臟(腑)病은 해당 경맥에 소속된 臟(腑)의 질병을, 他臟(腑)病은 해당 경맥 또는 臟(腑)와 연관성이 있는 他臟(腑)의 질병을, 有關器官病은 해당 경맥의 순행부위, 경맥, 臟(腑)와 병리적인 상관성이 있는 器官의

十四經脈 중 足厥陰 經絡의 病症에 대한 考察

질병을, 其他病은 이상의 내용의 해당 경맥과 연관성이 있는 질병을 각각 분류하여 十二經脈의 是動病과 所生病을 나타내었다. 肝經의 是動病 중 婦人少腹腫은 本外經病으로, 丈夫疝疝, 噎乾은 有關器官病으로, 腰痛不可以俛仰, 面塵, 脫色은 其他病으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所生病 중 胸滿은 本臟(腑)病으로, 嘔逆, 飧泄, 遺溺, 閉癢은 他臟(腑)病으로 狐疝은 有關器官病으로 각각 분류하였다(表 1).

〈表 1〉. 足厥陰肝經 病候 分類表³⁰⁾

項目	本外經病	本臟(腑)病	他臟(腑)病	有關器官病	其他病
是動病	婦人少腹腫			丈夫疝疝 噎乾	腰痛不可以俛仰 面塵, 脫色
所生病		胸滿	嘔逆, 飧泄, 遺溺, 閉癢	狐疝	

肝經脈의 主要 病症은 疝氣이다. 疝氣란 少腹疼痛, 控引辜丸을 특징으로 하는 증상이다. 疝氣의 발생은 肝經의 病變에 의해서 多發한다고 하였으나, 任, 督脈과 他臟腑, 經脈의 病變에 의해서도 발생된다고 하였다. 肝經脈이 少腹을 循行하고 陰器에 絡하므로 “諸疝皆爲肝經.”이라 한 것이라 한 것이며, “諸疝之原.”은 任脈인 것으로 보고 있다³¹⁾.

또한 少腹疼痛, 囊腫疼痛외에 巔頂痛, 乳房痛, 兩脇痛 등이 發見될 수 있는데, 頭巔頂, 乳房, 兩脇, 少腹, 囊部 등의 부위는 足厥陰肝經絡이 지나가는 곳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肝氣鬱滯하여 氣機阻塞하거나, 痰氣交阻하거나, 氣血結滯되면 經絡의 氣가 원활하지 못하고 脈絡이 통하지 않게 되어, 상기 부위에서 脹痛이 나타나고 腫塊가 形成되며, 만약 氣가 鬱滯되어 火로 變하여 머리에 영향을 미치면 巔頂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¹⁾.

外因은 寒濕之邪가 經絡에 凝集되거나, 肝脈에 濕熱이 鬱滯되어 氣結血瘀하므로 外陰이 腫痛하거나, 寒邪에 感하여 氣收한 즉 經脈不行, 氣滯不通하므로 少腹腫, 大小便不利 등을 일으키게 된다³¹⁾.

肝經絡의 絡脈 病候는 《靈樞經脈》²⁰⁾에서

“其病氣逆則辜腫卒疝, 實則挺長, 虛則暴癢, 取之所別也其病氣逆則辜腫卒疝, 實則挺長, 虛則暴癢, 取之所別也”라 하였는데, 이는 別絡 病候는 순행처인 脛, 股, 辜丸, 生殖器 등에 發見되는 疾患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絡脈은 別絡을 따라 孫絡, 浮絡으로 구성되어 大分支에서 小分支까지 무수히 많은 작은 分支로 나뉘어져 전신을 그물 모양으로 퍼져 있어서 전신 각 부에 氣血을 순행시켜 滋養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絡脈의 病候는 氣血 순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發見되는 病症이라 할 수 있다. 肝經絡의 絡脈 病候에 있어서도 肝經脈의 주요 순행부인 脛, 股, 辜丸, 生殖器 등에 氣血 순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發見되는 病症이라 할 수 있다.

肝經絡의 經筋 病候는 本經 經筋이 循行하고 맺히는 곳에서 대부분 나타난다. 經筋은 인체를 筋과 脈으로 나누어 인식하게 되었는데, 氣血을 運轉시키는 經脈과 다르게 運動屈伸하는 筋肉群을 經筋이라 하였다. 經筋은 經脈의 氣가 筋肉에서 “結, 聚, 散, 絡”된 것으로 筋肉의 기능 活動은 經絡 中の 氣血 濡養과 調節에 의하여 유지되며, 주요 작용은 四肢百骸를 이어 주며, 骨格을 연결해 주고 關節 運動을 주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足厥陰 經筋의 循行部에 대하여 《靈樞·經筋》²⁰⁾에 “足厥陰之筋, 起于大趾之上, 上結于內踝之前, 上循脛, 上結內輔之下, 上循陰股, 結于陰器, 絡諸筋.”이라 하였듯이 足厥陰 經筋의 病症은 大趾攣急·弛緩·疼痛, 內踝前 拘急·痺痛·靭帶損傷, 脛內側 轉筋·弛緩不用·拘急, 膝內輔骨 疼痛·攣急·屈伸不利, 股內側 拘急·痿廢, 陰器能力 喪失(陽痿 陰縮 혹은 陰器縮脛, 陰精不收) 등이다.

2. 足厥陰肝經 穴位的 主治 病候

足厥陰肝經의 各 穴位別 主治 活用은 鍼灸 經穴 相關 諸書에 두루 언급되어 있는데, 최근의 서적 中 대표적인 것 3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2-4).

穴位	主治活用
大敦	<p>① 痲症 治療의 要穴. - 『玉龍歌』, 『玉龍賦』, 『百症賦』, 『通玄指要賦』, 『天星秘訣』, 『勝玉歌』, 『雜病穴法歌』, 『靈光賦』 [肝經의 井穴 - 舒筋, 調肝, 祛邪 肝主筋 - 前陰部, 宗筋所聚處 肝經 循行 - 環繞陰器抵達小腹 女子: 寒濕下墜, 陰挺(子宮下垂), 腫痛. 男子: 陰疝, 痛引小腹. - 配太衝, 照海, 三陰交, 關元 效佳.</p> <p>② 救急 · 治血崩, 配百會. · 治婦女月事過時不止, 配隱白. · 治暈厥中暑, 配人中, 百會, 中衝, 厲兌.</p>
行間	<p>① 肝經의 榮火穴(榮主身熱), 子穴 - 瀉肝經實證, 熱證: 眼目病 治. · 治眼紅腫痛, 青光眼, 配風池, 太陽, 合谷. · 治膝腫目疾, 『通玄』. · 治雀目肝氣, 『百症賦』. · 治消渴, 配湧泉, 『百症賦』.</p> <p>② 膝痛, 膝腫 刺灸의 要穴. · 治膝腫痛, 『勝玉歌』. · 治腰連脚痛, 配環跳, 風市, 『雜病』. · 治脚膝諸痛, 配三里, 申脈, 金門, 『雜病』.</p>
太衝	<p>① 四關穴 - [配合谷(陽經의 代表 原穴)] → 陰陽相交 → 氣血凝滯로 인한 諸證을 治. · 肝陽頭痛, 頭目眩暈, 失眠 等을 治療 - 治高血壓, 配風池, 足三里, 三陰交. · 關節病을 治로 手脚不利, 風濕性病을 治療. [手連肩脊痛, 『席弘賦』, 『雜病』 / 鼻痔, 鼻塞, 鼻淵에 特效. 『雜病』, 『標幽賦』 治股膝腫, 脚痛, 『席弘賦』, 『肘後歌』, - 配足三里, 懸鍾, 陰陵泉, 陽陵泉. 治步行困難, 『通玄』, 『勝玉歌』, - 配中封.</p> <p>② 治赤眼, 『雜病穴法歌』 / 治口眼喎斜.</p>
中封	
蠡溝	· 肝經의 絡穴: 實則挺長, 虛則暴癢 → 辜丸痛, 陰挺, 陰痒에 有效.
中部	· 肝經의 郄穴: 急性肝病症에 有效. · 崩漏 등의 婦人科 出血性 病變에 用: 藏血, 調氣血 作用. · 四肢浮腫: 中部, 合谷, 曲池, 中渚, 液門 復鍍後穴, 行間, 內庭, 三陰交, 陰陵泉, 『大成』.
膝關	
曲泉	- 肝經의 合水穴 - 舒筋活絡, 清濕熱, 利下焦. → 孤氣, 陰癢, 陰挺 治療의 要穴. 『金鑑』, 『席弘賦』 · 治疝痛, 陰莖痛, 配關元, 中極, 太衝, 三陰交. · 治陰挺, 配百會, 氣海, 三陰交, 照海, 大敦. · 治男女加小腹痛, 配陰交, 氣海, 關元, 『席弘賦』 → 膝部疾病에 有效: 治風痺痿軟, 配大杼, 『肘後歌』.
陰包	
足五里	
陰廉	
急脈	
章門	<p>① 八會穴 容 臟會 - 脾經의 募穴: 五臟은 脾로 인해 運養 → 五臟의 病은 모두 可治. ② 腹部 病變을 治療 · 治胸滿脇痛, 『百症賦』, - 配支溝, 陽陵泉. · 治腹水, 肝胃腫大(肝硬化). · 治腹脹, 腹痛, 脾胃病, 配中脘, 氣海, 足三里, 天樞. ③ 治瘡疾 - 肝經의 交會.</p>
期門	<p>① 血液 循環調整의 要穴 - 肝經의 募穴(肝藏血), 肝脾經의 會穴(脾統血) · 『熱入血室症』: 太陽少陽病發, 頭項強痛, 或眩暈, 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二行, 肝俞, 肺俞, 慎不可發汗, 發汗則譫語, 五六日譫反不止者, 當刺期門. - 『傷寒論』 ② 痞結, 脇痛 治療의 要穴 · 傷寒痞結脇痛, 宜向期門見深功. 『肘後歌』. ③ 傷寒過經不解 · 期門穴主傷寒患, 六日過經猶未汗, 但向乳根二肋間, 又治婦人生產難. 『席弘賦』. · 治項強傷寒, 配復溜, 『百症賦』. ④ 治疝氣, 配大敦, 『玉龍賦』. ⑤ 治呃逆, 配三里(灸).</p>

2. 足厥陰肝經 穴位의 主治 病候

〈表 2〉. 《經穴辨證運用學》³²⁾

穴位	主治活用
大敦	尸厥, 死不知人, 脈動如故, 隱白及大敦主之. 《甲乙經》 小便失禁, 灸大敦七壯, 又行間七壯. 《千金方》 大便不通, 灸大敦四壯. 《千金方》 尿血 . . . 灸大敦各隨年壯. 《千金翼》
行間	厥心痛, 色蒼蒼如死狀, 終日不得太息者, 肝心痛也, 取行間太衝. 《甲乙經》 肝心痛, 取行間太衝主之. 《千金方》 行間, 太衝主噎乾喜渴. 《千金方》 行間主莖中痛. 《千金方》 行間治膝腫目疾. 《通玄指要賦》 行間可治膝腫痛. 《勝玉歌》
太衝	癩泄太衝主之. 《甲乙經》 乳癰, 太衝及復溜主之. 《甲乙經》 太衝曲泉主泄瀉, 痢瀉下血. 《千金方》 太衝瀉腎鳴以速愈. 《百症賦》 股膝腫起瀉太衝. 《肘後歌》 心脹咽痛, 鍼太衝而必除. 《標幽賦》 且如行步難移, 太衝最奇. 《通玄指要賦》
中封	身黃時有微熱, 不嗜食, 膝內內踝前痛, 少氣, 身體重, 中封主之. 《甲乙經》 女子伏膺疝, 中封主之. 《甲乙經》 中封, 五里, 主身黃, 時有微熱. 《千金方》 中封行間主振寒 . . . 尿難痛. 《千金方》 小腹痛滿痛, 中封, 然谷, 內庭, 大敦. 《鍼灸大成》
蠡溝	女子疝, 小腹痛, 赤白淫, 時多時少, 蠡溝主之. 《甲乙經》
中都	腸澼, 中郛(都)主之. 《甲乙經》 崩中, 腹上下痛, 中郛(都)主之. 《甲乙經》 中都主癰疝崩中. 《千金方》
膝關	兩膝紅腫疼痛, 膝關, 委中, 三里, 陰市. 《鍼灸大成》
曲泉	病注下血, 取曲泉五里. 《甲乙經》 曲泉主目赤腫痛. 《千金方》 曲泉主身熱頭痛汗不出. 《千金方》 膈痛, 曲泉, 中封, 水分. 《鍼灸大成》
陰包	腰痛, 少腹痛, 陰包主之. 《甲乙經》 陰包 . . . 主腰尻引小腹痛, 小便難, 遺尿, 婦人脈不調. 《甲乙經》 中滿如何去得根, 陰包如刺效如神. 《肘後歌》
足五里	五里, 三陽絡, 天井, 臑兪, 三間主嗜臥, 四肢不欲動搖. 《千金方》
陰廉	婦人絕子, 若未曾生產, 陰廉主之. 《甲乙經》
急脈	
章門	奔赬腹脹腫, 章門主之. 《甲乙經》 腰痛不得轉側, 章門主之. 《甲乙經》 章門石門陰交主奔豚上氣. 《千金方》 魏土珪妻徐病疝, 自臍下上至于心皆脹滿, 嘔吐煩悶, 不進飲食. 滑伯仁曰: 此寒在下廉, 爲灸章門, 氣海. 《鍼灸大成》 大便秘結不痛, 章門, 太白, 照海. 《鍼灸大成》 大便不痛, 章門, 照海, 支溝, 太白. 《鍼灸大成》
期門	心下大堅, 肯兪, 期門及中腕主之. 《甲乙經》 暗不能言, 期門主之. 《甲乙經》 期門主目青而嘔. 《千金方》 期門罷胸滿血膨而可已. 《通玄指要賦》 期門刺傷寒未解, 經不再傳. 《玉龍賦》 傷寒痞結脇痛, 宜向期門見深功. 《肘後歌》 期門穴主傷寒患, 六日過經猶未汗, 但向乳根二肋間, 又治婦人生產難. 《席弘賦》

〈表 3〉. 《經穴解》³³⁾

穴名	主治 應用	
大敦	足厥陰脈所出爲井木	
	肝之腎病	痿,小便遺數不禁,婦人血崩不止,陰挺出,陰中痛
	肝之肝病	卒疝七疝,陰頭中痛,汗出,陰上入小腹,陰偏大,腹臍中痛,悒悒不樂
行間	足厥陰肝經所溜爲榮火, 肝實則泄之	
	肝之腎病	遺溺,痿閉,莖中痛,腰痛不可俯仰,便溺難,男女小腹腫,面虛脫色,經血過多不止,崩中.
	肝之肝病	善怒,轉筋,小腸氣,瞑不欲視,目中淚出,太息,寒疝七疝,中風口高,肝積肥氣,小兒急驚風
	肝之脾病	咳逆嘔血,洞泄,四肢滿,腹中脹,四肢逆冷,痲瘖
	肝之心病	肝心痛,色蒼蒼如屍狀,癲疾
太衝	足厥陰肝脈所注爲輸土	
	肝之腎病	腰引小腹痛,兩丸蹇縮,遺溺,陰痛,小便淋,小腸疝氣痛,疝疝,小便不利,小兒卒疝,女子漏下不止,大便難,便血
	肝之肝病	跗腫內踝前痛,足寒,淫溼疝瘕,腋下馬刀
	肝之脾病	虛勞浮腫,泄泄,嘔血,嘔逆發寒
	肝之心病	心痛脈弦,心痛色蒼蒼如死狀,終日不得息
中封	足厥陰肝脈所行爲經金	
	肝之腎病	五淋不得小便,足厥冷,寒疝腰中痛,筋攣陰縮入腹
	肝之肝病	痿痺色蒼蒼振寒,小腹腫痛,繞臍痛
蠡溝	肝之脾病	身黃有微熱,不嗜食,身體不仁
	肝之腎病	小腹痛滿暴痛,塞丸卒痛,實則挺長泄之,虛則暴瘕補之,痿閉小便不利,臍下積氣如石,足脛寒痠屈伸難,赤白帶下,月水不調
中都	肝之肺病	數逆,恐悸,少氣不足,悒悒不樂,咽中悶如有疔肉,背拘急不得俯仰
	肝之肝病	小腹痛不能行立,脛寒腸癖,崩中不止,產後惡露不絕
膝關	肝之腎病	風痺膝內痲痛,引臑不可屈伸
	肝之肺病	咽喉中痛
曲泉	足厥陰肝木所入爲合水,肝虛則補之	
	肝之腎病	疝疝陰股病,陰腫,陰莖痛,女子少腹腫,陰挺出,陰痿,小便難,極閉,房勞失精
	肝之肝病	腹脇支滿,身目眩痛,汗不出,目眴眴,膝關痛不可屈伸,疝腫膝脛冷痛,女子血癥,按之如湯浸股內
	肝之脾病	泄利,四肢不舉,少氣,泄水,下利膿血,身體極痛
	肝之心病	發狂
陰包	肝之肺病	衄血,喘呼,小腹引咽喉
	肝之腎病	腰尻引小腹痛,小便難,遺溺不禁,月水不調
五里	肝之腎病	腸滿,熱閉不得溺
	肝之肝病	風勞嗜臥
陰廉	肝之腎病	婦人絕產,若未經生產者,灸三壯,則有子
章門	脾之募,足少陰,厥陰之會	
	肝之腎病	腰痛不得轉側,腰脊冷痛,溺多白濁,賁豚積聚,脊強,四肢懈惰,疝病
	肝之肝病	脇痛不得臥,善恐少氣,厥逆,肩臂不舉
	肝之脾病	腸鳴食不和,煩熱口乾,不嗜食,吐逆飲食都出,傷飽身黃.
期門	肝之肺病	胸脇支滿,喘息心痛而嘔
	肝之募,足厥陰,太陰,陰維之會	
	肝之腎病	賁豚上下,目青而嘔
	肝之肝病	脇下積氣,傷寒過經不解,熱入血室
	肝之脾病	霍亂泄利,腹堅硬不得臥,嘔吐酸食,飲不下,食後吐水
期門	肝之肺病	胸脇支滿,男婦血結,胸滿,面赤火燥,口乾消渴,胸中痛,太陽,少陽病病,胸中煩熱.
	肝之心病	傷寒心切痛

十四經脈 중 足厥陰 經絡의 病症에 대한 考察

〈表 4〉. 〈十四經脈 經穴의 取穴 및 應用〉³⁴⁾

穴位	主治活用
大敦	<p>① 疝症 治療의 要穴. - 『玉龍歌』, 『玉龍賦』, 『百症賦』, 『通玄指要賦』, 『天星秘訣』, 『勝玉歌』, 『雜病穴法歌』, 『靈光賦』. 肝經의 井穴 - 舒筋, 調肝, 祛邪 肝主筋 - 前陰部, 宗筋所聚處 肝經 循行 - 環繞陰器抵達小腹. 女子: 寒凝下陰, 陰挺(子宮下垂), 腫痛. 男子: 陰疝, 痛引小腹. - 配太衝, 照海, 三陰交, 關元 效佳.</p> <p>② 救急 · 治血崩, 配百會. · 治婦女月事過時不止, 配隱白. · 治暈厥中暑, 配人中, 百會, 中衝, 厲兌.</p>
行間	<p>① 肝經의 榮火穴(榮主身熱), 子穴 - 瀉肝經實證, 熱證: 眼目病 治. · 治眼紅腫痛, 青光眼, 配風池, 太陽, 合谷. · 治膝腫目疾. 『通玄』. · 治雀目肝氣. 『百症賦』. · 治消渴, 配湧泉. 『百症賦』.</p> <p>② 膝痛, 膝腫 治證의 要穴. · 治膝腫痛. 『勝玉歌』. · 治腰連脚痛, 配環跳, 風市. 『雜病』. · 治脚膝諸痛, 配三里, 申脈, 金門. 『雜病』.</p>
太衝	<p>① 四關穴 - 『配合谷(陽經의 代表 原穴)』 → 陰陽相交 → 氣血凝滯로 인한 諸證을 治. 太衝(陰經의 代表 原穴) · 肝陽頭痛, 頭目眩暈, 失眠 등을 治療 - 治高血壓, 配風池, 足三里, 三陰交. · 關節病을 치료 - 手脚不利, 風濕性病을 治療. · 手連肩脊痛. 『席弘賦』, 『雜病』 / 鼻痔, 鼻塞, 鼻淵에 特效. 『雜病』, 『標幽賦』 · 治股膝腫, 脚痛. 『席弘賦』, 『肘後歌』, - 配足三里, 懸鐘, 陰陵泉, 陽陵泉. · 治步行困難. 『通玄』, 『勝玉歌』, - 配中封. ② 治赤眼. 『雜病穴法歌』 / 治口眼喎斜.</p>
中封	
蠡溝	<p>· 肝經의 絡穴: 實則挺長, 虛則暴癢 → 牽丸痛, 陰挺, 陰痒에 有效.</p>
中都	<p>· 肝經의 郄穴: 急性肝病症에 有效. · 崩漏 등의 婦人科 出血性 病變에 用: 藏血, 調氣血 作用. · 四肢浮腫: 中都, 合谷, 曲池, 中渚, 液門 復鍼後穴, 行間, 內庭, 三陰交, 陰陵泉. 『大成』</p>
膝關	
曲泉	<p>- 肝經의 合水穴 - 舒筋活絡, 清濕熱, 利下焦. → 疝氣, 陰癢, 陰挺 治療의 要穴. 『金鑑』, 『席弘賦』. · 治疝痛, 陰垂痛, 配關元, 中樞, 太衝, 三陰交. · 治陰挺, 配百會, 氣海, 三陰交, 照海, 大敦. · 治男女疝小腹痛, 配陰交, 氣海, 關元. 『席弘賦』. → 膝部疾病에 有效: 治風痺痿厥, 配大杼. 『肘後歌』.</p>
陰包	
足五里	
陰廉	
急脈	
章門	<p>① 八會穴 중 臟會 - 脾經의 募穴: 五臟은 脾로 인해 運養 → 五臟의 病은 모두 可治. ② 腹部 病變을 治療 · 治胸滿脇痛. 『百症賦』 - 配支溝, 陽陵泉. · 治腹水, 肝胃腫大(肝硬化) · 治腹脹, 腹痛, 脾胃病, 配中脘, 氣海, 足三里, 天樞. ③ 治疝疾 - 肝經과 交會.</p>
期門	<p>① 血液 循環調整의 要穴 - 肝經의 募穴(肝藏血), 肝脾經의 會穴(脾統血) · 『熱入血室症』: 太陽少陽病發, 頭項強痛, 或眩暈, 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二行, 肝俞, 肺俞, 慎不可發汗, 發汗則譫語, 五六日證反不止者, 當刺期門. - 『傷寒論』. ② 痞結, 脇痛 治療의 要穴 · 傷寒痞結脇痛, 宜向期門見深功. 『肘後歌』. ③ 傷寒過經不解 · 期門穴主傷寒患 六日過經猶未汗, 但向乳根二肋間, 又治婦人生產難. 『席弘賦』. · 治項強傷寒, 配復溜. 『百症賦』. ④ 治疝氣, 配大敦. 『玉龍賦』. ⑤ 治呃逆, 配三里(灸).</p>

[肝經 穴位 主治에 대한 考察]

肝經脈의 經穴은 모두 14穴位로 大敦(井木穴), 行間(榮火穴, 子穴), 太衝(原穴, 輸土穴), 中封(經金穴), 蠡溝(絡穴), 中府(郄穴), 膝關, 曲泉(合水穴, 募穴), 陰包, 足五里, 陰廉, 急脈, 章門(脾募穴, 臟會穴), 期門(肝募穴) 등이다. 이들의 穴位 각각의 機能 및 主治에 대하여서는 肝經脈의 순행, 臟腑論의인 機能, 六經病證 중 厥陰病 病症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肝은 脇下에 있고 膽이 그 가운데 붙어있으며, 風木의 臟이 되며, 體는 陰이나 用은 陽이다. 肝은 몸에 있어서는 筋이 되고, 目에 開竅하며, 膽과 더불어 表裏를 이루고 있다.

肝의 주요 生理機能은 疏泄條達과 血의 貯藏, 調節이다. 따라서 肝臟의 기능이 失常되면 肝氣의 疏泄條達과 血液의 貯藏, 調節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된 병변은 모두 本經과 有關한 腧穴의 治療範圍에 속한다.

病理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무릇 肝氣鬱結, 肝陽妄動, 肝陰不足, 肝脈이 寒滯하여 나타나는 증상은 本經의 무릎아래의 腧穴과 복부 穴位를 鍼刺하여 치료할 수 있다. 肝氣犯胃, 肝脾不和, 肝膽火旺, 肝膽不寧, 肝膽濕熱, 肝腎陰虛, 肝火犯肺와 心肝血虛 등의 병리유형은 分別하여 胃, 脾, 膽, 心, 肺, 腎經에 有關한 腧穴 및 背腧穴을 配合하여 치료할 수 있는데, 이는 肝의 病症이 心, 肺, 脾, 心, 膽胃의 病症과 겹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經穴辨證運用學》³²⁾, 《經穴解》³³⁾, 《經穴學各論:十四經脈 經穴의 取穴 및 應用》³⁴⁾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어 보았다. 《經穴辨證運用學》³²⁾에서 언급된 主治 活用은 해당 혈위가 응용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참고편으로 나타내고 있다. 《經穴解》³³⁾에서는 각 穴位의 운용에 대하여 각 臟腑 病으로 分類하여 나타내고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經穴學各論:十四經脈 經穴의 取穴 및 應用》³⁴⁾에서는 각 穴位의 主治 및 活用に 대하여 각 歌賦를 중심으로 주요하게 활용되는 것을 취합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常用腧穴臨床發揮》²⁹⁾에서는 肝經의 각 穴位에 대한 主治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大趾와 大趾次趾之間, 內踝前, 脛骨內側, 11肋骨前, 6肋間內端 등의 곳에 분포한다. 각 혈위의 공통적인 성질은 모두 諸病이 발생된 곳과 근처의 局部病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그 특이성은 무릎이하의 穴로서 肝, 膽, 陰器, 小腹, 脇腹, 脇肋, 乳, 頭頂, 眼目과 月經 등의 諸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蠡溝는 性機能 亢進을 치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릎이하에 愈穴에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비교적 많으며 사용도 비교적 넓다. 복부에 위치한 穴로서 章門은 내부 有關 장기인 肝, 膽, 脾와 痞塊의 諸病을 치료한다. 期門은 熱入血室과 肝으로 들어간 諸病을 치료한다. 曲泉은 補益肝陰, 養肝(補肝腎)작용을 발휘한다. 傷寒病 중 厥陰症과 熱入血室 증상은 行間, 太衝, 期門 등 穴의 치료범위로 分別한다. 溫病 중에서 氣分證候와 營分證候는 熱이 極하여 風을 生하는 것과 肝風이 內動하는 것의 出現하는 증상으로 太衝, 行間, 曲泉 등 穴의 치료범위로 分別한다. 本經과 交會하는 他經의 腧穴로는 任脈의 曲骨, 中極, 關元이 있으며, 足太陰經의 三陰交, 衝門, 府舍와 서로 交會한다. 他經이 交會하는 本經의 腧穴로는 足太陰, 陰維脈이 本經의 期門穴과 交會하고 있고, 章門은 足少陽經과 交會하고 있다. 따라서 期門은 肝腎陰虛로 인한 脇肋痛과 陰維脈에서 發病한 結胸, 脇肋痛, 胸脘滿悶을 치료하며, 章門은 足少陽經에서 發病한 脇下痛, 膽疾患을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3. 厥陰의 病候

《韓醫學 總綱》¹⁾

厥陰病은 주로 足厥陰肝經의 病候이다. 他經의 病變을 誤治 或 失治하여 傳變되었거나 本經에서 직접 外邪를 받아 發病할 수 있다. 邪氣가 厥陰으로 들어가면 주로 寒熱錯雜證, 厥陰

寒證 및 厥陰熱證 등이 발현되며, 이외에 厥熱 勝復證도 드물게 발현된다.

寒熱錯雜證의 주된 증상은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餓而不欲食, 食則吐蛔 등이며 심하면 蛔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肝木이 土를 克한 上熱下寒의 證候이다. 肝胃에 熱이 鬱滯되어 津液을 灼傷하면 消渴이 생기고, 肝胃의 氣가 上逆하면 氣上撞心, 心中疼熱이 발생한다. 胃熱하기 때문에 餓하며 脾는 寒하므로 不能食한다. 上部가 熱하고 下部는 寒하면 蛔蟲이 불안하여 위로 도망치기 때문에 식후에 蛔蟲을 吐出하기도 하며 심하면 蛔蟲 때문에 陰陽之氣가 서로 接하지 못하여 四肢厥冷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厥陰寒證은 血虛寒厥證과 肝寒濁陰上逆證으로 나뉜다. 血虛寒厥證의 주요 증상은 手足厥寒, 脈細欲絶이다. 원래 체질이 血虛한데다 다시 寒邪가 凝滯하여 血液이 四肢로 暢通하지 못하면 手足厥寒이 나타나고, 血脈이 暢通하지 못하여 脈細欲絶하게 된다. 임상상 寒邪가 凝滯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만약 寒이 經絡에 凝滯되면 四肢關節이 疼痛하고, 胞宮에 凝滯되면 月經不調가 나타나는 등 증후 표현이 다르게 된다.

肝寒濁陰上逆證의 주요 증상은 乾嘔, 吐涎沫, 頭痛이며, 手足厥冷, 煩躁欲死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肝寒이 胃를 침범하여 濁陰이 上逆하므로 乾嘔 혹은 清涎冷沫을 吐하게 되고, 또한 肝經과 督脈이 巔頂에서 만나기 때문에 寒邪가 經絡을 따라 上逆하여 清陽을 擾亂시키면 巔頂痛이 발생한다.

厥陰熱利證의 주요 증상은 下利膿血, 腹痛, 裏急後重, 肛門灼熱, 口渴欲飲水, 舌紅苔黃膩 등이며, 肝熱이 下迫하여 濕熱이 鬱蒸하고 氣機가 壅滯되어 발생한다. 이것은 太陰, 少陰의 虛寒下利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厥陰邪熱이 大腸으로 下迫하여 腸道의 氣機가 壅滯되고 濕熱이 鬱滯되어 下利腹痛이 발생하고, 腸中の 穢濁한 물질이 급히 나가고자 하나 나가 지 못하여 裏急後重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며 裏熱이 津液을 손상하여 渴欲飲水하게 된다. 본 증의 病位는 비록 腸에 있지만 病機는 肝經과 관계가 있다.

厥熱勝復證은 厥冷과 發熱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發熱은 陽氣의 회복을 표시하는 것이며 厥冷은 陰勝을 의미하므로 厥冷과 發熱의 時間長短과 정도의 輕重을 통하여 陰陽의 消長과 豫後를 추측할 수 있다. 厥熱勝復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厥과 熱이 서로 같은 것으로 陰陽의 平衡상태를 표시하며 병이 장차 스스로 나을 것이다. 둘째, 熱이 厥보다 많은 것으로 正氣가 회복되고 邪氣는 물러나는 것을 표시하며 병이 물러간다. 셋째, 厥이 熱보다 많은 것은 正氣가 邪氣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오히려 병이 진행된다. 넷째, 發熱이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는 것은 陽氣의 회복이 지나친 것으로 역시 병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 熱이 上焦氣分을 손상하면 汗出喉痺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下焦血分을 손상하면 便膿血證이 발생하며, 經絡을 손상하면 氣血이 壅滯되어 癰腫이 발생될 수 있다. 厥陰病에 있어서 예후의 관건은 陽氣의 存亡에 달려있다. 陽氣가 회복되어 正氣가 왕성하면 예후가 양호하고, 반대로 陽氣가 衰竭하거나 陰竭陽脫하면 위중하게 된다.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대한 研究》³¹⁾

厥陰의 生理的인 특징을 보면, 厥陰은 陰分之裏가 된다고 했는데, 이는 手厥陰心包經이 神明之守衛와 傳達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과, 足厥陰肝經이 魂의 內藏과 血의 內涵을 주관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開闔樞에서는 이를 “闔”의 기능이라 하고 있다. 厥陰之氣는 肝과 相火의 기능을 개괄한 것으로 發生之氣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肝은 厥陰之臟에 속하며 內로는 相火가 깃들여 있는데, 이는 腎中元陽으로부터 來源하여 肝의 기능활동에 협조하고 있다. 肝은 腎陰과 胃液의 끊임없는 滋養을 득한 후에 정상적인

기능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內寄相火의 根源이 腎中元陽이므로 厥陰之氣는 先後天의 氣를 稟受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肝은 疏泄과 藏血을 主宰하므로 血脈과 胃腸의 積滯를 疏通하고 血의 運行을 促進, 調整한다. 또한 肝에 깃들여 있는 相火는 肝의 疏泄을 도울 뿐만 아니라 陽氣의 敷布와 陰寒을 除去하여 臟腑를 溫和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아울러 心包는 相互의 發揮處이며, 陰血의 母가 되므로, 厥陰之氣는 肝과 相火 기능의 종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厥陰의 病理的인 특징을 보면, 厥陰病은 寒熱錯雜, 厥熱勝復의 陰陽消長이 주된 病機이다. 대체로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饑而不欲食, 食則吐衄, 厥熱勝復, 乾嘔, 吐涎沫, 下之利不止, 頭痛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手足厥陰經의 病候는 相火가 熾盛하거나 鬱而化火하여 噎乾, 胸滿, 心中愴愴大動, 煩心, 心痛 등이 나타나고, 肝의 疏泄이 失調되어 氣機가 不利해지고 升降이 失調되므로 嘔逆, 泄泄 등의 證候가 나타난다. 위의 兩者의 내용은 相互 符合되거나 類似點이 많다. 그러나 《素問·熱論》에 “六日厥陰受之, 厥陰脈循陰器而絡于肝, 故煩滿而囊縮.”이라 하였고, 《素問·診要經終論》에 “舌卷, 卵上縮.”, “中熱噎乾. . . 心煩.”이라 하였고, 靈樞·經脈에 “脣青, 舌卷, 卵縮.”등이라 하였는데, 역대 醫家들도 이들의 내용을 厥陰證의 重要 證象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傷寒論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없다. 따라서 《內經》중에 언급한 病症이 傷寒論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陰陽勝復의 理致를 근거로 厥陰經을 해석함에 있어서 張隱庵은 “厥陰者, 陰之極也, 夫兩陰交盡是謂厥陰, 陰極而陽生.”이라 하였고, 柯琴은 “厥陰爲陰中之陽.”이라 하였고, 王冰은 “厥, 盡也. 陰氣至此而盡.”이라 하였는데, 이는 厥陰이 陰盡陽生의 주요 단계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傷寒論 중에서도 厥熱勝復의 病情變化를 중시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厥熱勝復은 厥陰의 重要 病機 중 하나이다.

《傷寒論鍼灸配穴選注》³⁵⁾

厥陰은 手厥陰心包와 足厥陰肝을 포괄한다. 厥은 盡이며, 厥陰은 陰盡을 말한다. 陰寒之氣가 장차 다할 경우 春陽之氣가 始生하고, 東風解凍과 草木生發하는 象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厥陰이라는 것은 陰盡陽生하며 陰中有陽하여 春木의 성질을 품고, 風氣의 流蕩을 빌어 陰陽이 消長하고 進退하는 전환을 반영한 것이다. 風氣는 善行하며, 木의 성질은 본래 直하고, 厥陰風木은 반드시 沖和의 陽적인 調節에 힘입어 능히 舒暢 條達한다. 人體의 生理와 病理로 설명하면 肝과 心包가 가장 적절하다. 肝은 橫膈膜 아래 腎系에 연결되고 腎水의 涵養은 水生木이 되며 肝은 疏泄을 주관하고 성질이 條達하므로 風木의 臟이 되며, 心包는 臣使之官으로 心을 대신하여 行陽하고, 肝은 膈上의 心包와 연결되므로 둘이 하나의 經에 속하고 木生火가 된다. 그러므로 肝과 心包의 生理는 확실히 “陰中之陽”이며, 厥陰의 本 뜻에 합치된다. 《素問·六微旨大論》에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이라 설명하고 있다. 厥陰과 少陽은 表裏가 되며, 手厥陰心包는 手少陽三焦와 연락되고, 足厥陰肝經은 足少陽膽과 연락이 되어 經脈의 屬絡을 통과하므로 陰陽의 두 氣가 비로소 소통하게 되어 中見之化를 이루게 된다. 膽은 肝에 붙어 있고, 心包는 三焦의 通路가 되므로 肝과 心包는 모두 相火를 내포하고 있다. 相火가 沖和하고 風木이 不鬱한 즉 厥陰兩臟이 敷布와 條達할 수 있으며, 體는 陰이 되고 用은 陽이 되고, “陽”은 少陽之化가 되므로 “厥陰不從標本, 從乎中也”이다. 만약 厥陰病이 들면 風木이 失調한 것으로 相火가 안에서 鬱結되어 邪火가 된 것이며, 證에는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이 보이며 木火가 交鬱됨을 반영하며, 肝氣橫逆하고 相火相衝이 겹하여 亢而無制의 한 면을 반영한다. 이와 동시에 “不欲食, 食則吐衄, 下之利不止”하고, 또한 肝木에 水寒을 끼고 上逆하여 木克水侮가 나타나 胃中虛寒의 한 면을 반영한다. 이러한 上熱下寒이

보이는 證은 바로 厥陰의 生理的 特性이 病理上의 規律에 반영된 것으로, 典型的인 厥陰病은 純寒도 아니고 純熱도 아니며, 寒熱이 섞여 있는 것으로 陰陽錯雜이므로 厥陰을 치료함에는 마땅히 陰陽을 함께 고려하고 寒溫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厥陰篇을 보면 厥證이 일정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寒厥, 熱厥, 厥熱의 往來가 交替되는 등이며, 비록 厥陰病理에는 다 속하지 않고, 서로 같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陰陽二氣의 消長進退를 반영한 것이며, 이것은 厥陰病機의 인식에 대하여 辨證價値가 있음을 말한다.

[厥陰 病候에 대한 考察]

六經 辨證은 전신의 病症과 각 經絡이 총괄하는 부위를 서술하여 分別하였으며, 아울러 表裏에 근거하여 질병의 傳變 과정도 반영하였으며, 모든 경의 病證에 관한 치료원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厥陰病은 주로 足厥陰肝經의 病變으로 他經의 病變을 誤治하거나 失治하여 傳變되었거나 本經에서 직접 外邪를 받아 發病할 수 있으며, 寒熱錯雜證, 厥陰寒證, 厥陰熱證, 厥熱勝復證 등이 발현된다.

한편 開闔樞論에서는 厥陰을 闔으로 보고 있는데, 즉 厥陰은 陰氣가 交盡되고 陽氣가 發하고자 하니 三陰의 闔이 되고 그 소속된 皮部는 “害肩”이 된다고 하였다. 柯韻伯은 “氣上逆而下之則闔折, 利不止者, 闔折反開也”라고 하였다. 厥證은 陰陽의 氣가 서로 順接되지 않은 것이며 厥熱勝復은 正邪가 交爭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靈樞·根結》²⁰⁾에서는 “闔折 則氣絕而喜悲, 悲者, 取之厥陰”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厥陰之氣가 弛縱되거나 鬱結되면 善悲苦의 증과 기타 각종 病증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寒熱交錯과 厥熱往復, 上盛下虛 등이 그것이다. 만약 熱이 厥에 많으면 正氣가 勝하고 陰氣가 回하여 그 病이 마땅히 물러가며, 만약 厥에 多熱하면 陽氣欲脫하고 陰氣已渴하여 그 病은 낫기 어렵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다.

厥陰篇을 보면 厥證이 일정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寒厥, 熱厥, 厥熱의 往來가 交替되는 등이며, 비록 厥陰病理에는 다 속하지 않고, 서로 같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陰陽二氣의 消長進退를 반영한 것이며, 이것은 厥陰病機의 인식에 대하여 辨證價値가 있음을 나타낸다.

厥陰病에 의해서 발현되는 症狀과 足厥陰肝經의 穴位와 他經의 穴位를 配穴하여 치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傷寒論鍼灸配穴選注》³⁵⁾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즉 “鍼灸治療에 있어서는 먼저 厥陰兩經의 要穴을 취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진찰하여 厥陰病의 證을 얻게 되면 太衝, 內關, 大陵을 취하여 平肝降逆하고 清火開鬱하도록 하며, 다시 心募인 巨關을 取하여 水火의 升降을 조절하며, 胃의 足三里를 배합하여 和中益氣하고 升清降濁하도록 한다. 이어서 五俞穴을 취하여 배합하도록 한다. 즉, 만일 心下滿이 보이면 大敦과 中衝을 刺鍼하여 서로 應하도록 하고, 身熱이 보이면 行間과 勞宮을 刺鍼하여 서로 應하도록 하며, 體重節痛이 보이면 太衝과 大陵을 刺鍼하여 서로 應하도록 하고, 咳嗽寒熱이 보이면 中封과 間使를 刺鍼하여 서로 應하도록 하며, 逆氣而泄이 보이면 曲泉과 曲澤을 刺鍼하여 서로 應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定法이다. 또한 少陽과 厥陰은 서로 表裏가 되므로 만약 表裏兩經을 겸한 證이 보이면 刺鍼시 井穴之外를 사용하고, 또 兩經의 穴을 刺鍼時 예를 들면 太衝과 光明, 혹은 大陵과 外關을 配穴할 경우에는 陰交陽別하여 表裏相通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배합하여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가령 蛔厥되는 경우 仲景은 주로 烏梅丸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久利를 치료하기도 하였다. 鍼治療에는 公孫, 內關, 中脘, 期門을 취하여 陰陽寒熱을 調和롭게 하도록 한다. 가령 傷寒에 5-6일이 되어 不結胸하고, 腹濡하며, 復厥한 경우 攻下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亡血로 證은 血虛에 屬하여 厥에 이르른 것으로, 鍼灸에는 肝俞, 章門, 關元, 巨關을 취하여 生血養血行陽하도록 한다. 가령

病이 手足厥寒하며, 脈細欲絶한 경우 仲景은 주로 當歸四逆湯을 사용하였고, 內有久寒한 경우에는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을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配穴할 경우 關元, 太衝에 重灸하여 溫經養血散寒하도록 하고, 中腕, 足三里를 취하여 鍼灸 치료하면 溫運中宮餘飲하게 된다. 가령 傷寒을 잘못 치료하여 大下하고, 寸脈이 沈而遲하며, 厥逆하고, 下部脈이 不至하며, 咽喉가 不利하고, 唾에 膿血이 있으며, 泄利가 不止한 경우에는 주로 麻黃升麻湯을 사용한다. 이것은 잘못하여 上熱下寒의 重證이 된 것으로, 涌泉과 大敦에 뜸을 뜰 수 있으며, 鍼으로 內關과 太淵을 瀉하도록 하니, 하나는 下寒을 溫하고 다른 하나는 肺熱을 淸하는 것이다. 가령 下利에 寸脈이 오히려 浮數하고 尺中自澀한 경우에는 반드시 膿血을 淸하여야 한다. 만약 配穴하고자 하면 大陵, 外關, 合谷, 太衝을 刺鍼하여 心包의 熱을 淸하고, 三焦의 鬱滯를 조절한다. 가령 厥陰病에 熱利下重한 경우 仲景은 주로 白頭翁湯을 사용한다. 만약 配穴하고자 하면 合谷, 上巨虛, 曲泉, 陰谷을 취하여 淸熱利濕시키고 和血調腸하도록 한다. 가령 厥陰病 乾嘔에 吐涎沫하고 頭痛이 있을 경우 仲景은 주로 吳茱萸湯을 사용하였다. 만약 配穴하고자 하면 大敦, 百會, 中腕, 足三里를 취하여 溫胃化飲하고 溫肝降沖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配穴原則도 임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厥陰病에 대하여서는 足厥陰肝經의 穴位와 그 病症에 부합되는 他經의 穴位를 적절하게 配穴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結 論

足厥陰 經絡의 經脈·絡脈·經筋 病候와 肝經 穴位의 主治 病症, 厥陰病의 病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足厥陰의 經脈 病候는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分類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肝經의 是動病 중 婦人少腹腫은 本外經病으로, 丈夫疝疝, 噎乾은 有關器官病으로, 腰痛不可以俛仰, 面塵, 脫色은

其他病으로 각각 分類되었으며, 所生病 중 胸滿은 本臟(腑)病으로, 嘔逆, 飧泄, 遺溺, 閉癰은 他臟(腑)病으로, 狐疝은 有關器官病으로 分類되었으며, 少腹疼痛, 控引牽丸을 특징으로 하는 疝氣症이 主要 증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足厥陰 經絡의 絡脈 病候는 循行處인 脛, 股, 牽丸, 生殖器 疾患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足厥陰 經筋 病候는 循行하고 結聚되는 곳에서 발현되는 攣急, 弛緩, 疼痛, 拘急, 轉筋, 弛緩不用 등이 언급되어 있다.

足厥陰 穴位의 主治 病症은 經絡循行處인 大趾, 內踝前, 脛骨內側, 11肋骨前, 6肋間內端 등 부위의 穴은 해당 부위 근처의 局部病을 치료하는 共通性을 갖으며, 또한 膝 以下の 穴로서 肝, 膽, 陰器, 小腹, 脇腹, 脇肋, 乳, 頭頂, 眼目, 月經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特異性을 갖고 있다. 病理 類型別로는 肝氣鬱結, 肝陽妄動, 肝陰不足, 肝脈이 寒滯하여 나타나는 증상에는 本經의 무릎아래의 腧穴과 복부 穴位를 사용하고 있으며, 肝氣犯胃, 肝脾不和, 肝膽火旺, 肝膽不寧, 肝膽濕熱, 肝腎陰虛, 肝火犯肺와 心肝血虛 등은 胃, 脾, 膽, 心, 肺, 腎經에 有關한 腧穴 및 背俞穴들을 사용하고 있다.

厥陰病의 病候 중 厥證은 陰陽의 氣가 서로 順接되지 않은 것이며 厥熱勝復은 正邪가 交爭하는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여 厥陰之氣가 弛縱되거나 鬱結되면 寒熱交錯과 厥熱往復, 上盛下虛 등의 寒熱錯雜證, 厥陰寒證, 厥陰熱證 및 厥熱勝復證 등으로 발현되며, 이러한 厥陰病에 대하여서는 足厥陰肝經의 穴位와 그 病症에 부합되는 他經의 穴位를 적절하게 配穴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에 足厥陰 經絡의 病候는 經脈의 순행과 주요하게 연계되며, 肝臟의 氣能失調에 의하여 발현되는 病機와도 밀접한 연관性을 갖으며, 六經病 중 厥陰病과도 상관性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肝經의 각 穴位는 本經脈의 循行處와 肝 關聯 體系의 機能失調를 主治症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羅昌洙 外. 韓醫學總綱. 서울 : 醫聖堂. 2001 : 29, 37-8, 555, 583-585.
2. 金完熙 外. 韓醫學의 形成과 體系. 대구 : 증문출판사. 1990 : 142.
3. 余自漢. 內經靈素考. 北京 : 中國中醫出版社. 1992 : 120.
4. 林建華 外. 鍼灸學基礎. 成都 :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 : 13-4.
5. 羅昌洙. 經絡腧穴學 理論. 서울 : 正文閣. 2001 : 107, 131, 154.
6. 林鍾國. 鍼灸治療學. 서울 : 集文堂. 1983 : 457.
7.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 (上). 서울 : 集文堂. 1993 : 661-2.
8. 霍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釋.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 122.
9.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台北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 14.
10.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台北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 35.
11.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台北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 239.
1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3 : 112-3.
13. 王維一. 銅人輸穴針灸圖經(鍼灸名著集成). 北京 : 華夏出版社. 1997 : 715.
14. 鄧良月. 中國經絡文獻統監. 青島 : 嶺南出版社. 1993 : 715.
15. 張介賓. 類經. 서울 : 대성출판사. 1996 : 289.
16. 鄧良月. 中國經絡文獻統監. 青島 : 青島出版社. 1993 : 716.
17. 鄧良月. 中國經絡文獻統監. 青島 : 青島出版社. 1993 : 716.
18. 鄧良月. 中國經絡文獻統監. 青島 : 青島出版社. 1993 : 717.
19. 李世珍. 常用腧穴臨床發揮.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9 : 712-3.
20. 霍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釋.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 134, 154.
2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3 : 137.
22. 鄧良月. 中國經絡文獻統監. 青島 : 青島出版社. 1993 : 720.
23. 張介賓. 類經. 서울 : 大星文化社. 1996 : 165.
24. 鄧良月. 中國經絡文獻統監. 青島 : 青島出版社. 1993 : 721.
25. 李世珍. 常用腧穴臨床發揮.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9 : 713-4.
26. 霍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釋.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 154.
27. 鄧良月. 中國經絡文獻統監. 青島 : 青島出版社. 1993 : 722.
28. 張介賓. 類經. 서울 : 大星文化社. 1996 : 380-1.
29. 李世珍. 常用腧穴臨床發揮.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9 : 714.
30. 吳紹德 外. 陸瘦燕針灸論著醫案選.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51.
31. 김정우, 김길천.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대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6 ; 11(1) : 76-7.
32. 余仲權, 林建華. 經穴辨證運用學. 四川 :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9 : 279-87.
33. 岳含珍. 經穴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9 : 367-83.
34. 羅昌洙. 經穴學各論. 서울 : 正文閣. 1999 : 269-82.
35.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33-4.